

이 자료는 **수령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일 자	2026년 8월 3일 월요일	담당부서	대외협력실
담당실장	전영건 실장(053-718-8230)	담당자	임상기 선임(053-718-8386)

산기평, ‘2026 인공지능(AI) 라이프 챌린지’ 개최 - 세상을 바꾸는 인공지능(AI), 모두를 위한 도전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기평)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인공지능(AI)으로 해결하는 「2026 인공지능(AI) 라이프 챌린지」를 8월 1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산기평이 주관하는 이번 챌린지는 ‘세상을 바꾸는 인공지능(AI), 모두를 위한 도전’을 슬로건으로, 국민이 생활 속 문제를 직접 제안하는 「인공지능(AI) 라이프 아이디어 챌린지」와 연구자와 인공지능 개발자가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인공지능(AI) 라이프 솔루션 챌린지」로 나뉘어 총 100일간 진행된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이하는 인공지능(AI) 라이프 챌린지는 사회적 가치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고령자, 장애인, 지역 사회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 문제 해결 아이디어 선정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고, 총상금 규모를 1,800만원 상당으로 늘렸다. 아울러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신설(상금 300만원)하여 대회의 규모를 확대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벤처투자, 동아일보 등 다양한 기관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국민 아이디어가 실제 사회문제 해결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8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인공지능(AI) 라이프 아이디어 챌린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과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인공지능으로 해결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공모전이다. 인공지능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만드는데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산기평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아동, 다문화가정 등 기술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계층들은 물론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공지능 기술 확산을 이끌고, 산업기술 기술개발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서용원 산기평 원장직무대행은 “인공지능(AI) 라이프 챌린지는 국민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불편을 연구자와 개발자가 함께 해결하는 열린 혁신의 장”이라며 “국민의 작은 아이디어가 더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술로 거듭나게끔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챌린지 참여 방법과 상세 안내는 산기평 홈페이지(www.keit.re.kr)와 기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일을 바꾸는 기술, 내일을 빛내는 청력